

성곤철도 설계로 꽃 피운 영광스런 인생

성곤(成都-昆明)철도 건설에서 피어난 조선족 설계전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전 세계 60년대에 모주석께서는 “3선 건설”이란 중대한 전략결책을 실시했다. “3선”은 모주석의 전략구상의 하나로서 전 국을 전선(前线), 중간지대와 전략후방으로 나뉘어 각기 1선, 2선과 3선이 되었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서북과 대서남의 사천, 운남성을 비롯한 7개성(省)이 “대3선”이었고 중부지역의 허북, 산서성을 비롯한 6개성(省)이 “소3선”이었다.

“전쟁을 준비하고 폐항을 준비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는 지도사상에서 서남, 서북지방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국방공업, 첨단과학기술, 교통건설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안정된 전략후방을 갖게 한 동시에 전쟁대처의 강력한 위력(威力)도 과시했다. 중국의 “3선 건설”은 그 결핵과 규모, 동원범위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비할 수도 없는 군사사과 경제사상에서 전례가 없는 거사였다.

1964년, 국제정세는 지극히 불안정했고 전쟁인소는 급격히 승격했다. 미국은 베트남(越南) 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고 중소관계는 전례없이 악화되어 쏘련은 중국변경에 백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고 일부 전략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와 군사시설에 겨냥하고 있었다. “반공대륙”으로 대만당국을 대만해협에서 긴장한 국세를 자아냈다. 전쟁형세는 엷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국방안전은 특등대사에 이르렀다. 전쟁을 대처한 우리나라의 “3선건설”은 기세 드높게 시작되었다.

농촌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에 입학했어도 차비가 없어 가지 못하던 내가 동네 분들이 모아준 돈으로 대학문에 들어섰고 국가에서 돌봐주는 1등 인민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친 나는 역대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의 첫 번째 대학생으로 학교 문을 나왔다. 공산당의 배려와 고마운 동네 분들이 없었다면 나의 오늘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서슴없이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26세의 피 끓는 청년으로 호호당당하게 할빈철도국을 대표한 30여명 지원자들과 함께 붉은 꽃을 앞가슴에 달고 영도들과 동료들의 열렬한 환송속에서 “대 서남 건설”의 행렬에 뛰어들었다.

나는 호북성 무한시에 자리 잡은 철도부 제4설계원 정밀측량대(精密測量隊)에 분배되었다. “3선건설”의 긴박한 수요에 갖 성립된, 이 젊은 설계 대오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해 온 50여명의 순 대학졸업생, 공정기술인원들로 일떠

다. “할빈철도국 선진청년”, “모택동저작 학습 적극분자”란 인사당안의 사적에 따라 당지부에선 나에게 공청단 정밀측량대 단지부서기 직책을 맡겼다. 전 대 54명 공정기술인원 가운데 31명이 공청단원이었다.

우리는 이불 집과 행군침대를 짊어지고 설계현장으로 떠났다. 전 대원을 한 차에 실은 자동차는 붉은기를 휘날리며 천한(川川)성도-무한(무도)에 들어서서 집주했다. 당시 사람들이 사계령이라 불리는 절벽의 고산도로를 지날 때다. 산 밑의 평지는 따뜻한 여름철로 각가지 꽃들이 만발했고 툭아 오르는 산 중간중간은 가을철의 대자연이라 쓸쓸한 감이였지만 산정으로 향한 길에 올라섰을 땀벌써 백설이 뒤 덮힌 겨울의 풍경이었다.

창밖으로 산 밑을 내려다 보니 장강에서 떠돌며 오가는 대형의 기선들과 선박들은 마치도 자그마한 개미처럼 보였고 절벽의 중간중간에 예뉘고 있는 구름층을 내려다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머리가 띠어 주뻗이 일어선다. 그렇게 노래도 부르고 한담으로 떠들썩하던 자동차 안은 삼시간에 뒤죽은 듯 조용해졌다. “싸악~싸악~” 모래알 같던 깔아버리는 자동차의 타이어바퀴 소리만 귀청을 때렸다. 운전사는 고도로 되는 경각성과 집착으로 운전대를 돌렸다. 드디어 하산의 길에 들어섰다. 한차례 높고 험준한 산마루의 고개 길에서 춘하추동 사계절의 풍경전을 목격한 우리 일행은 평지에서 들어서자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운전기사에게 엄지손가락을 내 보였다.

차림미를 한다고 운전실로 대우를 받은 나는 지금도 운전사의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기억에 새록 새록하다. “차 사고란 정신을 바짝 차리는 험준한 고산 길에서 생기는 법이 아니고, 안전하다고 맘을 폭 놓는 평지에서 생기는 법이요!”. 우리는 일주일의 가나긴 도정을 거쳐 사천성 서창(西昌)에 도착하는 성곤철도는 사천성과 운남성 두 성의 7개 지(地), 시, 주(州)를 걸치면서 지세가 지극히 험한데서 991개(座)에 달하는 대소철교와 427개(座) 터널이 설계되어 있었다. 터널의 길이를 모두 합쳐보면 344.7킬로미터를 넘었고 3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큰 터널이 9개나 되었다. 성곤철도는 이르는 곳

마다 깊은 골짜기가 언덕이 되고 높은 해안이 골짜기가 되는 곳이다. 철도선은 지리조건과 자연환경의 속박으로 전 선122개 기차역 가운데서 42개 역전이 철교역이 아니면 터널안에 세워졌다. 금구하(金口河)역전과 애대(埃岱)역전사이 58킬로미터 구간에 터널의 총 길이만 해도 44킬로미터로 순전한 “지하철도”와 닮았는 세계철도건설의 일대장자였다.

정밀측량대는 외업(外業)과 내업(內業) 두 부문으로 나뉘었다. 외업 조장의 중임은 나에게 차려졌다. 나는 저녁이면 기름등불 아래서 다음날의 작업과 업무분공을 빈틈없이 짰고 일주일만에 한 차례씩 갖게 되는 정치학습도 열심히 준비하곤 했다. 무슨 일이나 좀 분배 있게 해보겠다는 열혈의 나이였기에 피곤도 모르게 사업에 몰두했다. 낮이면 외업에 동행 서주했고 저녁이면 밤늦게 모택동저작을 펼쳐면서 당지부에 단 한권밖에 없는 《모주석 어록》을 가져다 오늘은 한두조쪽 내일은 좀 더, 이렇게 학습하고 배껴 쓰면서 공부하다 나니 한 달도 못되는 사이에 나의 학습필기 “모주석 어록”은 우리 대의 두 번 째로 있게 된 《모주석 어록》으로 되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측량의기는 모두가 국외에서 수입한 고급정밀 기계이다. 의기의 사용과 보관, 보호제도는 매우 엄격했다. 《24미터 은강선척(24米銀鋼線尺)》은 작업당시 맨손으로 만졌다가 나 부주의로 부닥쳤다고 할 때 “작업 사고”로 치고 처벌을 내렸다. 우리가 쓰고 있는 측량 경위기(经纬仪)는 그 텃개 모양이 마치도 포알 모양과 흡사하여 우리 모두는 “포통”이라고 불렀다. “포통”을 짊어지고 작업에 나설 때면 그의 좌우 쪽 양쪽엔 두 사람이 바짝 따라가며 의기의 안전을 보호했고 전후의 50-100미터 구간엔 신호기를 든 방호원을 파견하여 의기의 안전을 담보했다.

한번은 앞 편의 방호원인 상해청년 차대(車隊)가 다가올을 발견하고 즉시로 방호기를 크게 흔들며 “코코비--!, 코코비--!” 하며 고함쳤다. 차가 오니 속히 길 옆으로 피하라는 한어의 “코비엔(靠边)”을 상해지방말로 “코비”라고 해서 한차례의 커다란 웃음거리로 되었다. 대내의 언어교류는 매우 복잡했다. 광둥, 상해, 복건, 사천, 호북, 호남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보통화(표준말)”가 유창하지 못하고 게다가 자기 지방의 방언을 쓸 때면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여 변변치 않

은 나의 이른바 “소수민족식”한어도 우리 대의 학습과 각종 모임에선 “표준어”가 되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주석이 파견하여 온 설계전사”가 왔다고 당시 정부와 군중들의 따뜻한 위문과 환영을 받았다. 이르는 곳마다 당지정부에선 번역인원들과 무장보안인원들을 파견하여 설계전사들의 안전을 담보해주었다. 곤란한 역경속에서도 “설계전사”들에 대한 식량과 채소공급이 따라섰고 가지각색표로 공급되는 유통지원 차수도 많아졌으며 지어 어떤 현세의 약국에선 껌질은 씹기조차 싫은 구물구물 움직이고 있는 뱀 고기를 한통씩 갖고와 우리들을 위문했다. 뱀이라면 무섭고 징그럽고 구역질이 일어나는 나이기에 보기가 해도 상을 짜꾸리곤 했는데 남방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며 이는 특별대우라고 했다. 설계전사와 당지군중들과의 사이는 매우 조화로웠다. 우리는 시간을 짜서 당지 주민들에게 리발도 하여주고 물도 길어주곤 했다. 당시 내가 머리 깎아준 당지주민들만 해도 하루에 3-4명에 달했고 많을 때는 십여 명을 넘어섰다.

우리의 측량과 설계 작업은 재빨리 6,379미터 길이로 된 싸무라다(沙木拉打) 터널에 이르렀다. 당시 이 터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로 산세가 높고 준엄하여 외업의 측량 임무는 매우 간고했다. 매개 측량 점을 선정(選點)할 때면 어느 산이 높으면 꼭 그 산정에 가자 올라가야 했다. “포통”을 등에 지고 산정에 올라갈 때면 가파른 비탈에선 앞사람이 당기고 뒷사람이 부축하여 올라 밀면서 기어 올라가고 작업을 마치고 내려올 때면 뒷사람이 당기고 앞에선 사람이 되돌아서서 측량의기를 부축하면서 한발 두발 옮겨 내려오곤 했다. 우리 두달 반의 설계 임무를 보름 앞당겨 완수하고 시공을 기다리고 있는 철도병대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성곤철도 대회전에 들어선 철도병은 무려 18만명이나 되었고 민공들을 모두 합치면 성곤철도 건설대오는 30만명에 달했다.

들끓는 “3선 건설”의 현장은 한차례 크나큰 전쟁터였다. 산세가 가파르고 기이한 산봉우리들이 절벽을 이루고 깊숙한 동굴들이 총총하게 늘려졌으며 계곡들이 종횡으로 교차된, 지형과 지질이 지극히 복잡한 가운데 가능하게 폭발될 토석류(泥石流)계곡이 249곳으로 연 길이가 740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산사태(滑坡)가 가능하게 일어날 곳이 183곳으

로 중국철도건설 가운데서 자연재해가 가장 많고 가장 밀집된 곳이 바로 성곤철도였다. 성곤철도는 “지질박물관”이란 이름을 갖고 있으며 지어 국의 전문가들은 “철도건설의 금구(禁区)”라고도 단정했다. 수많은 철도병지전원과 철도공인, 민병들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딪힌 토석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와 싸워가는 “전쟁”속에서 적지 않은 건설자들이 부상을 당했고 지어는 보귀한 생명을 바쳤다. 철도부 제2공정국의 한 단위에선 공사(工事)로 희생된 분들이 600여명에 달했고 또 다른 한 단위에선 산사태와의 싸움에서 130

여명이 생명을 바쳤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성곤철도 1킬로미터 건설에서 평균 2-3명 건설자가 생명을 바쳤다고 한다. “3선 건설”의 표지식 건물인 성곤철도는 1970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고고성을 올렸다. “모주석께서 파견하여 온 설계전사”로 8년간의 “3선 건설” 생활은 이미 역사로 돌아갔다. 지극히 영광스런 나의 인생의 한 토막이다. 성곤철도 건설로 하여 중요한 항전했고 지어는 보귀한 생명을 바쳤다. 철도부 제2공정국의 한 단위에선 공사(工事)로 희생된 분들이 600여명에 달했고 또 다른 한 단위에선 산사태와의 싸움에서 130

자가 말했다. “성곤철도의 건설은 서남지구 2,000만 백성들의 운명을 개변시켰고 서남의 황량(荒凉)했던 지구가 50년의 진보를 갖고 오게 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전 부주석 류화청(劉華淸)상장께서 “3선 건설”에 대한 한토막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 당시 정치, 경제, 자연환경이 그렇게도 악렬한 조건하에서 광대한 간부, 공인, 지식분자, 해방군관병들이 표현한 간고분투정신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발양해야 할 보귀한 정신재부이다.”

/리현 기자

한복 차려입은 로봇소녀 인기

제9회 중국-동북아박람회 연변형상부스에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입은 로봇소녀가 박람회에 이목을 끌었다. 이 로봇소녀는 왼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승리의 “V” 손동작으로 내빈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로봇소녀는 예의 로봇인데 연변FAFARE전자제품유한회사에서 개발, 연구제작하고 생산, 조립했으며 6년간

의 연구제작을 통해 올해 4월 첫 번째 예의로봇으로 생산한 후 전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각종 박람회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로봇소녀는 인간의 지휘대로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의 조작절차에 따라 운행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로 제정된 원칙강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데 그의 입구는 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FAFARE전자제품유한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이 예의로봇은 회사가 박람회 연변형상부스를 위해 특별 설계해 제공한 로봇인데 시장가격으로는 3.5-5만원이라고 한다. 이 로봇은 세계적으로 첫 흥보용 로봇인데 독특한 외관을 통해 고객들의 주의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상가들이 제품을 소개하는데 최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결신

제2회 '하얼빈아리랑' 개막

제2회 한국문화주간 '하얼빈아리랑'이 하얼빈한국인(상)회와 주심양총영사관의 주최로 12일 하얼빈에서 개막했다. 주심양한국총영사관 조백상총영사, 재중한인회 황찬식회장, 그리고 한국 경기도 태권도협회, 한국관광공사,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회 및 흑룡강성과 하얼빈시 정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300명이 참석했다. 하얼빈한국인회 김남일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벌써 21

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고 함께하는 맛과 흥과 기예를 겨루는 문화축제를 열어 우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심양한국총영사관 조백상총영사는 축사에서 “아리랑축제는 이제 한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 흑룡강성주민과 하얼빈 시민 모두가 함께 감상할수

있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맛과 맛을 마음껏 즐기고 한국문화가 주는 감동도 흠뻑 취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얼빈 외사관 관우봉 부주임은 축사에서 “오늘에 와서 하얼빈과 한국의 교류는 단순한 경제분야에서의 교류만이 아닌 문화, 교육 등 많은 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광

노래방기계 임대

- 동포단체나 개인, 그리고 업체들에서 각종 행사에 사용 가능
-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 임대료는 10만원/1회이며 배송이 필요할 경우 15만원/1회

문의전화
070-7711-7775
010-6866-0815

한화생명 동포를 위한 보험설계 상

맡고 맡기십시오 역제영봉 현상입니다

내일을 향한 금융 **안와생명**

1.보험 전문가 모집 및 상담	아프면 보험생각
2.병원비 걱정인 분(임원,통원 치료 최저 2만원대 가능)	늙으면 연금생각
3.목 적 사 금 만 들 분	당신의 소중한 꿈을
4.자동차,연금 등 보험상담	응원하는 안와생명

누구든 할수 있는 /고소득의 직업 **가업에서 보장까지 한화생명이 함께 합니다.**

FP:정화 TEL: 031)303-0254 핸드폰: 010-3716-7775

SK Telecom LG Tele@com **alleg kt** 공식대리점

최신형 스마트폰 으로 바꾸고 현금 20~50 만원

* 함께 사업 하실분 찾습니다 *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쓰던번호 그대로 사용가능) 매장 방문후 요금제, 핸드폰 자유선택후 당일지금 대출, 다단계, 별정통신, 선물폰이 아닙니다

구로지점 HP : 010-3068-1872
양재본점 TEL : 02-2057-1090